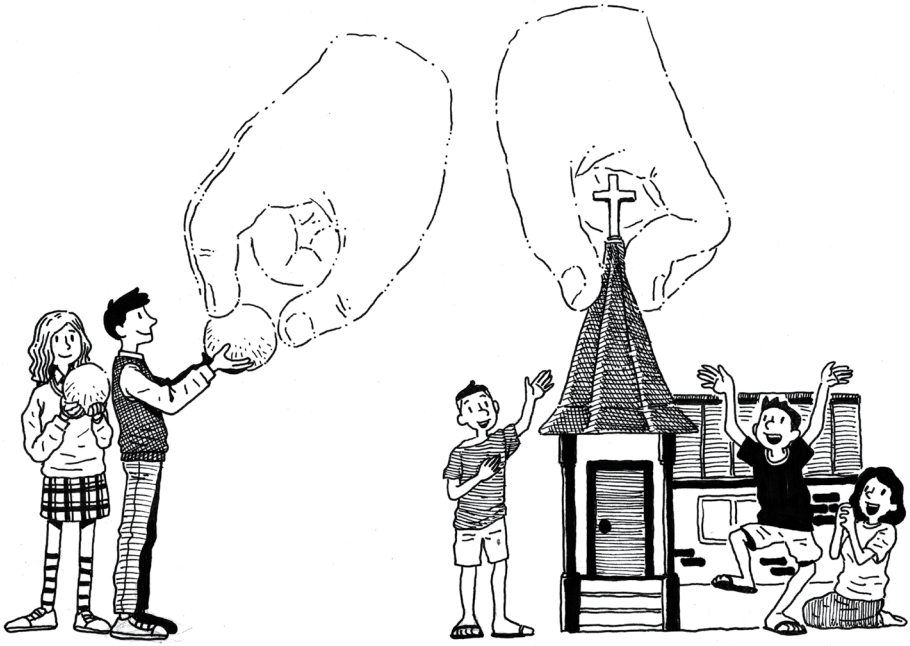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

29 헌금 생활

고후 8~9장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은혜찬송 169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오늘 배울 말씀

1.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헌금의 기초임을 압니다.
2. 헌금 생활의 유익함을 압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 ]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 ]답고 [ ]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 ]으로나 [ ]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5~7)

말씀을 이해하기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전도나 봉사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몸도, 영혼도,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작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형식상 혹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율법이 있기 전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일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보다 더욱 굶주리는 형제들을 염려하여 풍성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은 기쁨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싹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생활을 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드리는 일에도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후 8:1~2)

Moreover, brethren, we make known to you the grace of God bestowed on the churches of Macedonia: that in a great trial of affliction the abundance of their joy and their deep poverty abounded in the riches of their liberality.
(2 Co 8:1~2)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2. 연보의 뜻은 무엇이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 연보를 하였나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헌금을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적어 봅시다(출 36:3~5, 신 14:28~29, 대상 29:10~14, 마 6:19~24).

1)

2)

3)

2. 십일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창 14:17~20, 창 28:20~22, 신 14:22~23, 말 3:8~10, 히 7:4~9).

3 마게도냐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어떤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지 성경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고후 8장).

4 헌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은 어떤 것인가요(고후 9:7)?

5 가난한 생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막 12:41~44, 눅 21:1~4). 이 과부는 생활비가 없어서 굶주리거나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신 14:22	
월 대상 29:14	
화 말 3:10	

수

마 6:20

목

눅 21:4

금

고후 9:7

토

히 7:4

헌금의 조건

서인도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헌금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수입의 일부를 헌금할 것.
둘째, 재력에 따라 헌금할 것.
셋째, 기꺼이 헌금할 것.

어느 부유한 상인이 작은 은화 하나를 접시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회계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첫째 조건에는 합당하나 둘째 조건에는 벗어나므로 받을 수 없어요"하고 그 은화를 상인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부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번에는 은화 대신에 금화를 하나 접시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것은 둘째 조건에는 부합되지만 셋째 조건에 벗어나므로 받을 수 없어요"하고 금화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부드러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시 전의 금화를 접시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회계가 기꺼이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헌금은 자신의 수입 중 처지에 맞게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도 휴거 되는 것인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부류가 생겨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 받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되는 부류는 교회이고 곧 유대인 중에 구원 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교회의 일원으로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1~18)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